무주군, 해외 판로 확대 박차

필리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협의 · 베트남서 샤인머스캣 판촉 행사 등 진행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황인홍 무주군수와 농업기술센터, 농협 관계자 등 10여명이 필리핀 마라곤돈군과 베트남 하노이 지역을 방문했으며 4일 베트남 내 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상점인 f5플루트마트에서 무주반딧불 샤인머스캣 판촉 행사를 펼쳤다.

무주군이 농가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샤인머스캣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황인홍 군수와 농업기술센터, 농협 관계자 등 10여명이 필리핀 마라곤돈군과 베트남 하노이 지역을 방문했으며 1일과 2일에는 필리핀 마라곤돈군수(Lawrence N.Arca)를 만나 2022년 맺은 협약을 기반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사업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현지인들이 일하는 열대과일 농장도 둘러봤다.

필리핀 마라곤돈군은 브로커 개입이나 중개 없이 무주군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계절근로자를 선발, 근로자 의무 사항 등을 사전교육해 인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주군에서는 산재보험과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등 복리후생에 힘쓰고 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무주군 지역 내 4천 4백여 농가에서 딸기 및 토마토 시설하우스 농작업 및 사과농가의 적과, 수확 작업 등을 해왔다.

한편, 2일 베트남으로 이동한 황 군수 일행은 3일 하노이 까이삼 농수산 도매시장을 방문해 현지에서 판매 중인 농수산물을 살피며 품질 및 유통, 가격 등을 확인했으며 동까우 협동조합에서는 무와 토마토, 양배추, 오이 재배 현장을 견학했다.

4일에는 베트남 내 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상점인 f5플루트마트에서 무주반딧불 샤인머스캣 판촉 행사 벌여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또 수입 바이어를 만나 무주반딧불 농산물 수출 조건을 타진하는 시간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2017년 반딧불 사과를 시작으로 포도와 복숭아, 샤인머스캣 등을 수출하며 베트남 전역에 무주 반딧불 과일 맛과 품질을 알려왔다"라며 "이번 방문은 2024년 1백여 톤을 수출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샤인머스캣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확실한 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130여 농가가 주생산지인 설천면과 안성면에서 연간 35ha의 샤인머스캣을 재배하고 있으며 무주군은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 10대 전략 품목으로 육성 중이다. 또 포장재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수확 상자, 팔레트 지원에도 10억여 원을 투입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양수발전소 유치 주민 서명운동

진안군, 주민 동참 · 공감대 형성 위해 전개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양수발전소 건설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환경적 영향이 커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대상지 선정에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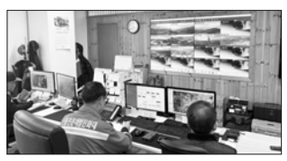
이에 군은 지난 2023년도에 양수발전소 유치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하며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뒤, 지난해에는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동서발전(주)와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유치 활동 준비를 마쳤다.

올해부터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다양한 긍정적 영향들을 홍보하는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주민서명운동과 함께 병행해 더욱 효과적으로 주민동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며 지속적인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로 보다 세심하게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할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양수발전소 건설은 지역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정주인구 증가, 지방세수 증가는 물론이고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도 증가하는 등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안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군민 모두 유치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봄철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 운영



장수군은 봄철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인 산림과를 필두로 소방, 경찰, 산림항공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감시원 등 산불방지인력 90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총동원해 주민밀집장소 방문계도, 홍보물 배부, 영농부산물 파쇄기 지원 등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봄철 산불로부터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산에서의 흡연 행위, 화기 소지를 삼가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산불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추진해 군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3856곳 대상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장수군은 오는 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장수군 소재 사업체 3,856곳을 대상으로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사업체조사는 국내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주요 정책 수립,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매년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조사일 현재 장수군 지역 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로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올해는 무인매장 현황 파악, 11차 산업분류 개정 반영 등 경제통계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사표 작성을 통해 조사정확도가 보다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조사는 현장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조사(전화·인터넷·배포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는 총 6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되며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 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이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은 "조사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군민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조사원의 방문 또는 전화조사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2026~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 회의 가져

무주군이 정부예산 순기별 대응 방안 및 예산확보 전략 모색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5일 군청에서 최정일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발굴 사업 담당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는 국가예산 발굴 사업을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3차에 걸쳐 발굴한 신규사업 중 28건을 추진하기 위한 2026년도 국비 요구액 154억 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무주군이 발굴한 주요 사업은 △법무부 외국인출국지원센터 신축(총사업비 452억 원)을 비롯해 △무주구천동 33경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총사업비 120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4개 사업, 총사업비 258억 원) 및 △도로 시설 개량 사업(3개 사업, 총사업비 2,991억 원)등으로 정주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숙원 해결에 중점을 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무주군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대전~무주~남해 철도망 구축(총사업비 6조 원) 사업과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총사업비 2조 원), △전주~무주 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2조 원) 사업 등도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으로, 중앙부처 대응을 비롯한 공모사업 응모계획, 국정과제 및 중앙부처 시책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등도 공유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어려운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역점 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중 가장 경쟁력 있고 파급효과가 큰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규제혁신 등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찾아가는 칼갈이 서비스 제공

진안군은 관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칼갈이 서비스'가 올해도 추진된다.

2023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칼갈이 서비스'는 숙련된 기술자가 직접 마을을 찾아가 무뎌진 칼, 낫, 가위 등의 날을 갈아줌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독거 어르신 세대가 많아짐에 따라 가정에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군민들의 필요를 더욱 높였다.

특히 지난해에만 총 1만7,625건(칼 1만1,763건, 가위 2,183건, 낫 3,492건, 기타 18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민 편의 행정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올해 칼갈이 서비스는 2월 10일부터 진안읍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의 마을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 행복증진 프로그램 추진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관내 2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치료를 진행한다.

놀이 치료란 놀이를 통해 자발성과 아동의 행복감을 올려 놀이 안에서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흥미 유발을 통한 동기 향상과 자발성 증진을 돕기 위해 본격적인 수업 참여 전 자연스럽게 가벼운 놀이를 하면서 유희적 요소 안에 의미를 담아 최적화된 놀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2월 4일~4월 22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15회차 동안 진행되며 대상은 '진안 중앙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케어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들이다.

센터는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으로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센터 연계 등 정신건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